

01 교회소식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13개국 총회장들과 지·협력교회 대표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6주년 소식.

02 생명의 말씀

소출의 기쁨을 얻으려면

추수 때에 많은 영혼을 알곡으로 거두려면 사랑으로 복을 전파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03 기획특집

신앙 성장을 위한 우리의 '회복'

주님을 영접한 후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신숙히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비결 세 가지.

04 간증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인도 자가테시와리 성도와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신장결석이 배출된 이순애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67호 2016년 12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 주님 품으로!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5,600여 개의 지·협력교회와 함께 활발한 아프리카 선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며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인 이재록 목사는 2000년 이후 우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개최된 연합대성회의 감사로 초청되어 성결의 복음과 따르는 권능의 역사로 아프리카 선교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케냐에 세워진 나이로비만민교회 담임이며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인 정명호 목사는 만민성경대학과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를 통해 아프리카 54개국에 활발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2016년 현재, 아프리카 선교는 나이로비만민교회를 중심으로 5,600여 개의 지·협력교회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및 손수건 집회

지난 11월 27일에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 만민과 하나 되어 아프리카를 깨우고 있는 13개국의 총회장들과 케냐 각 도시 대표 목회자들, 국회의원, 지·협력교회 대표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예배 및 축하 행사를 가졌다(사진 1, 2). 모든 일정은 케냐 K24 TV, KBC TV, N TV에서 취재, 보도하였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약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사진 3, 4). 이날 오후에 열린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서는 '겉옷을 내어 버리라'는 말씀을 전한 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사진 5).

에이즈, 소아마비가 치료되고 태어날 때부터 잘 들리지 않던 귀가 들려

이를 통해 10년간 에이즈로 고통받던 마가렛 쉬푸 성도는 기억력이 돌아오고 몸에 힘이 주어졌으며, 제클린 아가노 성도는 소아마비로서 있지 못하던 두 살 된 아들이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어 기쁨으로 간증하였다(사진 6, 7). 샤드락 형제는 선천성 오른손 마비를 치료받았고, 로즈 체체 성도는 보조기 없이도 걷게 되었다(사진 8, 9).

루카스 오무세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잘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려 잘 듣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궁경부암, 신부전증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계속되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프리카 13개국 총회장 및 대표 목회자들과의 만남

한편, 이수진 목사는 11월 25일 금요일아예배 1부 시, 아프리카 13개국에서 온 총회장들과 케냐 각 도시 대표 목회자들, 지·협력교회 대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다. 2부에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의 공연(사진 10), 케냐 유명 복음성가 가수 헬렌 교수의 특송으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

또한 이 목사는 26일(토) 만민국제신학교(MIS) 졸업식(사진 14)에서 축사를, 목회자들과의 만남(사진 11~13, 15~16)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하여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아프리카를 깨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소출의 기쁨을 얻으려면

인도할 만한 일꾼들이 너무 적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곳곳을 살피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2.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알곡으로 거두려면

1)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롬 5:8).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로 떨어질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을 영혼들을 생각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애타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권세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가령,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다르지요. 곧 진실한 사랑은 강력한 심령도 변화시키고,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또한 영적인 사랑이 임한 만큼 얼굴에 평안함과 온유함, 부드러움이 풍겨 많은 사람이 깃들고 그 모습에 은혜가 되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성경상의 인물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운 믿음의 선진입니다(빌 1:8).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때로는 주리고 목마르며 자지 못

하면서도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에게서 진한 사랑을 느낀 성도들 역시 자신의 눈을 빼어 줄 마음이 될 정도로 그를 지극히 사랑했을 뿐 아니라(갈 4:15), 어떤 이들은 그의 신앙을 좇아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다른 많은 영혼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게 만드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 지혜를 다해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2)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임의대로 하시지 않았습니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좇아 행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의 마음을 닮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은혜롭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족으로서 할 일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며 가정 일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 가족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가족은 오히려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면 남보다 부지런하며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남들 앞에서는 항상 웃는 은혜로운 얼굴을 하지만, 식구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다투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가족 중에는 실망하고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고 후 2:15~16, 딤후 2:7~8).

또는 자기 믿음과 충만함을 내세워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믿음이 작다.'며 무시하거나 상대를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강요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주면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상대의 믿음과 환경을 고려하여 때에 맞게 이끌어야 영혼이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지요. 따라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끼지 않으며, 영혼들을 위해 생명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으려면 비진리와 악의 모양들을 모두 벗어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며 행함이나 말, 발걸음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꽃의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모이듯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한 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알곡으로 거두려면 많은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훗날 천국에서 누릴 기쁨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7~38)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 농부의 마음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기쁘고 행복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추수를 도와 줄 일꾼이 없다면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을 알곡으로 거두려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1. 추수할 일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요즘은 추수가 영농 기계화로 수월하지만, 옛날에는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양도 줄고 아예 추수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부의 입장에서 추수할 시기에 일꾼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 경작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낫을 대어 추수할 곡식들을 거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막 4:26~29).

이처럼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여야 하는 추수 때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은 수없이 많은데, 정작 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신앙 성장을 위해 회복해야 할 세 가지



마치 갓난아기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듯이 주 안에서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 아버지의 믿음으로 성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요일 2:12~14, 엡 4:13). 그런데 만일 자신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주 안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속히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POINT 1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자신의 신앙이 정체된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다. 요한계시록 2장 3~5절에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은 '삶의 90% 이상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사랑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100% 전부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었다. 교회에 간다는 자체가 설레고 행복했고, 모이기를 힘쓰며 가정, 일터 등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다.

첫사랑을 잃으면 교회에서도 세상 것이 생각나고, 꿀송이처럼 달았던 설교 말씀도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쯤이야.' 하며 세상 것들을 취하게 되고,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된다.

정녕 주님을 사랑하여 첫사랑의 은혜가 뜨거우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복하게 잘할 수 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100%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 해도 마음 안에 항상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다.

POINT 2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해도 수학에 기초가 없다면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공부하여 기초를 닦아야 고등학교 진도를 제대로 쫓아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부터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앙의 기본으로는 예배와 기도를 들 수 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작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된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이다. 자기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것들을 쫓아간다가나 하나님 일에 충성 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 만일 줄음과 잡념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힘도 주어지지 않는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미약하다면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다. 충성 봉사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마음에 활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잠시 잠깐의 육적인 충만함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과연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 기도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온전하게 쌓아갔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회복해야 할 것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이다.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서야 가정의 구성원들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다.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일치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이다.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신앙의 기초를 닦고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POINT 3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창 1:26~27)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원수 마귀 사단이 육을 취하고 세상을 취하는 것이 좋도록 만들어졌다. 원래 죄의 본질이 더러운데도 그 느낌이 좋게 입력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뜻을 깨우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은혜가 임한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려는 은혜가 임하니 그 맛을 알아감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선을 행할 때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위로와

기쁨을 주시니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의 수준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발견하고 온전함을 위해 날마다 변함없이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날마다 새롭게
- 사랑장 1-5
- 십계명 8-10
- 믿음의 분량 1-2
- 창세기 강해 32-38
- 1차 영혼육 6-8
- 성령의 9가지 열매 4-9

GCN TV설교

- 사랑의 증거 (이수진 목사)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3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15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11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6 (정구영 목사)
- 사랑한다면 (교경아 전도사)
-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재영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18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59
- 모두 드려요 50
- 창조와 과학 2
- English 2
- 내 마음의 찬양 36
- 마지막 때 4

해외성회 및 교육

- 관능 스페셜 14
- 말씀 스페셜 14
- 독일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4
- 회상 1

GCNHD 채널 ktallev tv 882번



“참 평안을 주시고 권능까지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가데사우리 성도 (34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저는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 오래 전에 헤어진 오빠가 있었습니다. 1994년, 오빠 안토니는 난민 배를 타고 스리랑카를 떠난 뒤 생사를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16년 만에 인도 남부 첸나이에 오빠가 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는 인도에서 주님을 영접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첸나이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교회에 다니면서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마침내 2011년 7월, 저는 인도 첸나이로 넘어가 극적으로 오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해 9월, 저는 오빠를 따라 첸나이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인도인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였지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고부간의 갈등, 가정의 불화와 말다툼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첫 아이 임신 중 태아의 심장이 멈추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한 것을 회개한 뒤 담임 한영희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으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요. 이윽고 2012년 7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2013년, 둘째 아이 임신 중에는 병원에서 양수 이상으로 태아와 산모가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고 둘째 아들 또한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었지요. 저는 어린 시절, 스리랑카에 살면서 내란 중에 총알의 파편이 제 목숨에 파고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

니다. 이로 인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고열과 함께 몸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양쪽 귀에서 진물이 흘러 30년 동안 중이염으로 남모를 고통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2015년 11월,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교회를 방문한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양쪽 귀의 진물이 이내 멈추었을 뿐 아니라 총알 파편이 몸에 박혀 고통스럽게 하던 증세마저 말끔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저는 아동주일학교에서 보조교사와 식당 봉사를 하며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영접하여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건강과 참 평안의 축복까지 베풀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GCN방송을 보며 환자기도를 받았더니 신장결석이 배출되었어요!”

갑작스러운 하혈로 병원을 찾은 저는 오른쪽 3 mm, 왼쪽 8 mm의 신장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크기가 작아 자연 배출될 수 있지만, 왼쪽 결석은 깨뜨리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받았지요. 그런데 결과를 살펴보던 의사는 “깨뜨린 결석이 소변으로 다 나오지 않았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제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단한 수술이니 이것쯤이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았고 수많은 성도가 온갖 질병을 치료받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음에도 막상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병원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그 뒤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따금 왼쪽 갈비뼈 밑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때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고, 예배 때 설교 후에 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순애 집사 (60세, 2대대 11교구)

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곤 하였지요. 그러던 2016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7시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GCN방송을 켜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마침 ‘생명의 말씀’이 방송되고 있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환자를 위

한 기도’가 시작되어 손을 왼쪽 옆구리에 얹고 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통증 부위가 점점 커지더니 방광까지 내려와 무언가 뚝고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신장결석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통증을 참고 소변 차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갔더니 과연 소변과 함께 결석이 배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 저의 신앙생활에는 감사와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사라져 몸이 가벼워짐은 물론,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꾸준히 전해 온 만민뉴스를 지금도 변함없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지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믿음을 더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이순애 집사의 몸에서 빠져나온 약 4 mm의 신장결석.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 1: National Churches, Column 2: Churches in Gyeongju, Column 3: Churches in Daegu, Column 4: Churches in Seoul.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